

新文學運動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1918~1927년 周作人의 산문을 중심으로

高韻璇*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신문학운동에의 참여
3. 길 찾는 사람 : 혼란과 방향
4. 혁명세력과의 결별
5. 마치며

1. 들어가면서

중국인들은 5·4 신문학운동에 관해 언급할 때, 그 구체적인 활동 양상과 역할, 파급력을 엿볼 수 있는 작가로서 周氏 형제(魯迅과 周作人)를 대표로 꼽는다.¹⁾ 어느 운동이든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왕성한 활동이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지만, 이 형제들이 창작해 낸, 이론에 그치지 않는 실제 작품의 창작은, 신문학운동이 1917년 5월 4일의 애국학생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예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두 형제가 이후 걸었던 길은 다른 양상을 띤다. 다소 도식화시켜 보자면, 魯迅은 『新青年』에 『狂人日記』(1918)를 발표하면서 최초의 현대소설을 쓴 작가로서, 이후 문단의 어른으로 대접하며, 오늘날까지 ‘中國魂’을 표현한 작가로 추앙하고 있다. 반면, 周作인은 당시 중국의 사회적 조

류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1930년대 言志와 性靈의 표현을 강조한 이후에는 자아에 대한 인식처를 찾지 못한 채 전통에 빠져들어 전통 사대부의 귀족주의적 성향을 띠는 방식으로 시대를 역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北京에 남아 일본 치하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내면서부터는 아예 ‘매국노로 낙인찍혀, 1980년대 이후 재평가되기까지 그의 문학적 성과는 선택적·편파적으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周作人의 현실인식과 공리주의적 문예관이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를, 1920년 말 늑막염에 걸려 1921년 6 - 9월 사이 北京 교외의 西山에서 요양생활을 하게 되는 시점으로 본다. 때마침 중국의 상황은, 거의 신문학운동의 거점이었던 『新青年』이 제8권부터 마르크스 사상을 전파하는 기관지로 성격을 굳히게 되었고, 신문학운동의 동지들은 사회개혁에 대한 방책과 실현성에 전망을 달리하면서 뿔뿔이 흩어질 무렵이었다.²⁾ 게다가 1923년 9월에 출판된 『自己的園地』(1922. 1-1923. 7월간에 쓴 53편의 문예평론, 단평, 雜文을 수록한 책) 序文에서의 “나는 고독하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 위안을 찾는다.(我因寂寞, 在文學上尋求慰安)”³⁾라는 구절로 인해, 周作인은 계몽주의자에서 개인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평가는 곧, 문학을 통한 중국사회의 인식의 전환과 개혁을 꿈꾸던 자가 그 꿈이 좌절되자 결국 문학의 의의를 개인적인 향유물에 한정시키고 말았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때 신문학운동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다시피한 周作인의 내면세계를, 이렇게 결론만 간단하게 보기에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신문학운동 퇴조기의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차차 문학과 민중의 관계를 분리·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문학은 더 이상 중국을 염려하고 대중을 계몽하는 매개가 아닌, 단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여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과거와 단절하고, 草木蟲魚와 귀신, 골동품을 玩賞하며 속세에 초연한 듯은 등의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하기엔, 독자로서 우리는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2) 김영구, 「신문학운동에 있어서의 『新青年』의 역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28-33쪽. (공개적으로 정치참여를 밝힌 『本誌宣言』은 1919년 12월 7권1호였고, 陳獨秀가 北京을 떠나 上海로 근거지를 옮긴 1920년 후반 8권부터 본격화되었다.)

3) 『自己的園地』舊序(1923. 8. 1. 『晨報副鐫』), 鍾叔河編, 『周作人文類編③本色: 文學, 文章, 文化』, 湖南文藝出版社, 1998, 331쪽.

* 高麗大 中語中文學科 講師

1) 陳思和, 『中國現當代文學名篇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2005, 29쪽.

없기 때문이다. 항상 시대의 조류와 逆行하여 사고한 사람⁴⁾치고, 너무 쉽게 좌절한 것이 아닌가? 정말 뼈피 부르조아적 속성 때문에 변화의 물결이 두려워서 위축된 것일까?⁵⁾ 본고는 이러한 소박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회의와 혼란에 휩싸여 있던 시기 전후 周作人의 활동과 산문을 통해, 그 변화의 과정에서 정작 그가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문학운동에의 참여

周作人이 신문학운동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北京에 자리잡고 난 뒤의 일이었다. 1917년 3월 27일, 32살의 그가 蔡元培의 초청으로 北京大 문과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陳獨秀·胡適·李大釗·錢玄同·劉半農 등과 교류하며 『新青年』 잡지에 기고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周作人이 잡지에 글을 발표한 것은 『新青年』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女子世界』, 『天義報』, 『紹興公報』, 『越譯日報』 등에 번역물과 민족혁명 문제와 관련된 글을 발표하면서, 형 魯迅과는 『新生』이라는 잡지를 직접 발간할 것을 기획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魯迅과 周作人의 『新青年』과의 인연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들의 참여로 인해서 당시의 많은 간행물과 『新青年』을 차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서구의 근대사상과 정치제도의 도입을 소개하고 제시하던데 그쳤던 『新青年』은, 이 형제들의 서구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과 소개를 발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文人

4) 李何林은 일찍이 1985년에 쓴 한 책의 서문에서, 5·4시기부터 1949년까지 30년 중국현대문학의 역사를 主流와 支流 및 逆流라는 3대 조류가 혼합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周作人을 전반기에는 지류, 후반기에는 역류로 전환한 작가로 규정한 바 있다.(신홍철, 「5·4초기 周作人의 현실인식과 문예사상」, 『중어중문학』 제12집, 1990, 51쪽에서 재인용) 溫儒敏 역시, 周作人이 통일적으로 유행하는 견해와 '정론'에 쉽게 찬동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단일한 비평표준을 고수하지 않은 것을 일러 '逆向思维'라고 특징지은 바 있다.(溫儒敏 저, 신진호 역, 『중국현대문학비평사』, 신아사, 1994, 66쪽)

5) 錢理群, 『凡人的悲哀-周作人傳』, 業强出版社, 1995, 12쪽.

필자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1년 뒤에는 거의 문학에 대한 글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⁶⁾

처음에 周作人은 걸출한 번역가로 문단에 등장했다. 『新青年』에 실린 것은 주로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핀란드 등 동구권 작가들의 작품이었다.⁷⁾ 일찍이 일본 유학 시기부터 『域外小說集』(1909)을 낸 바 있는 두 형제는, 이들의 작품을 번역하면서 문학의 힘과 시인의 역할, 혁명, 그리고 사람다움의 문제, 삶의 의미를 찾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은 일차적으로 문학연구회(1921년 1월 발족)가 『小說月報』를 통해 기획한 '피압박민족 특집호'로 계승되어, 민중의 고통을 직시하고, 약소민족의 각성을 촉구하고, 조국의 자유를 회구하는 애국정신을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흔히 '국가'·'민족'이라는 틀에 국한되어 이해되는 憂患意識 뿐만 아니라 周作人에게 있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인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줬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20년에 번역서 『點滴』가 출판되면서, 周作人은 자신이 번역한 작품들을 어떤 일정한 경향으로 묶을 수는 없지만, 굳이 공통된 하나의 정신으로 표현하자면 人道主義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 그는, 톨스토이의 무저항이든 솔로호프의 죽음에 대한 찬미이든, 모두 인류적 문제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작품을 통해, 오로지 理性을 신봉하던 그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감정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하였다.⁸⁾ 서정적이고 목가적이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그려내는 절묘한 묘사,⁹⁾ 민족의 고통과 비애를 그리면서도 잃지 않는 상상력과 풍자정신,¹⁰⁾ 이성을 자극하면서도 감성적인 카타르시스까지 함께 담겨있는 이들의 작품은, 周作人에게 문예의 참맛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인의 역할은 어떠한지, 또 인간의 삶에 문학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¹¹⁾를 진지하게 생각해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6) 김영구, 「신문학운동에 있어서의 『新青年』의 역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25쪽.

7) 이 당시 周作人이 번역한 소위 '피압박민족의 문학'과 관련된 작가와 작품은 모두 26명, 60여 편에 달한다고 한다.(劉全福, 『翻譯家周作人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7, 73쪽)

8) 「『點滴』序」(1920.8.北大初版本), 『周作人文類編⑧希臘之餘光:希臘, 西洋, 翻譯』, 586-587쪽.

9) 「『黃薔薇』序」(1911初作, 1927년 商務版 『黃薔薇』), 『周作人文類編⑧希臘之餘光:希臘, 西洋, 翻譯』, 558쪽.

10) 劉全福, 『翻譯家周作人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7, 83쪽에서 재인용.

11) 「『黃薔薇』(1928)」, 『周作人文類編⑧希臘之餘光:希臘, 西洋, 翻譯』, 562쪽.

周作人과 소위 약소민족 문학과와의 인연은, 일본 유학 시절, 章太炎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창 排滿 의식이 고취되어 있을 때, 민족 혁명 문학에 관심을 두면서 이루어졌다.¹²⁾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辛亥革命과 袁世凱의 독재, 帝制운동, 군벌통치를 겪었던 세대에 속해서 그런지, 周作人에게서 사회변혁에 대한 어떤 들뜬 기대감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임시정부가 낫선 정당정치 체제로 인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자, 官府는 창을 메고 사람들의 통행을 단속하거나 관리들이 연회를 즐길 때 총을 메고 보초를 서는 등 그 위세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민중은 병들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폭력으로써 폭력을 제어하려 한 모순의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하고,¹³⁾ 이제 서민의 정부가 들어섰으니 모든匹夫가 천하의 흥망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몰이에 대해서,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천성에 차이가 나는 법인데 그 구체적인 책임의 방식에 대한 해명은 없이, 賢者和 보통사람(庸衆)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의 실현이 아니라 관부의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¹⁴⁾ 나중에 4장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신해혁명 전후에 발표한 이 두 편의 글만 보더라도, 그는 ‘혁명’, ‘국가’, ‘애국’을 내세우는 구호에 대해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가 문단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은, 무샤노코지 사네야쓰(武者小路實篤)의 『一個青年的夢』을 접하고 나서부터였다.¹⁵⁾ 무샤노코지의 이 희극은, 武者小路君所作 『一個青年的夢』(1918. 5. 15. 『新青年』 4권5호)이라는 周作人の 소개글이 실리고 난 다음해, 1919년 8월(魯迅 역, 『新青年』 7권2호-5호 수록)에 번역되었다. 무엇보다 그가 공명했던 것은, 설사 역량이 부족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전 사회적 계몽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理想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지금은 무용하더라도 최소한

12) 止庵 校訂, 『(周作人自編文集)中國新文學的源流』, 河北教育出版社, 2002, 11쪽.

13) 「民國之征何在(1912. 2. 2. 『越鐸日報』),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36쪽.

14) 「庸衆之責任(1912. 2. 16. 『越鐸日報』),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42쪽.

15) 尾崎文昭, 「周作人の新村提唱とその波紋(上) - 五四退潮期の文學狀況(1)」, 『明治大學教養論集』 207호, 1988년 3월, 121쪽.

미래를 위한 씨앗은 뿌릴 수 있지 않겠느냐¹⁶⁾ 그들의 도전 정신이었다. 周作人은, 작품을 쓰거나 발언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이나 환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했고, 이 자체가 아직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인류애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후 周作人の 新村 운동의 소개와 활동 역시 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¹⁷⁾

周作人은 시라카바파(白樺派)의 인류 상호 이해를 위해 “민중의 각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非從民衆覺醒不可)”¹⁸⁾는 견해를 러시아의 ‘V Narod(민중 속으로)’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러시아의 ‘V Narod(브나로드)’는 실제 계급적 의미의 農奴나 노동자와 함께 생활하는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였고, 무샤노코지의 말은 계급적 차원에서가 아닌 ‘인간 개개인의 각성’을 뜻했다. 시라카바파는 기본적으로 ‘人人 - 國家’가 아니라 ‘人人 - 人類’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¹⁹⁾ 周作人이 新村에서 본 것도 결국은 ‘인간다운 생활’이었다. 新村의 구성원들은 국가적 정부와 다른 차원의 자율적 공동체의 조건으로, 우선 각자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인간의 생존과 물질적 행복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멸망과 재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는 구성원 전원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오로지 의식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전 구성원이

16) “近來又讀日本武者小路君作的脚本『一個青年的夢』, 受了極強的感觸; 聯想起梁先生的文章, 起了一個念頭, 覺得“知其不可而爲之”的必要, 雖然力量不及, 成效難期, 也不可不說, 不可不做. 現在無用, 也可播個將來的種子.”(『武者小路君所作『一個青年的夢』,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91쪽)

17) 이 때문에 周作人の 人道主義를 시라카바파의 영향으로 이해하기도 하고(細谷草子, 「五・四新文學の理念と白樺派の人道主義」, 『中國文藝研究會』, 제6호, 1972년), 新村운동에의 참여를 동시기 性 담론에 대한 관심과 연결지어 우생학과 사회주의를 결합하고자 한 시도로 보기도 한다.(사카모토 히로코(坂元ひろ子), 양일모·조경란 옮김,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 풍경, 2004, 150-151쪽) 그러나 細谷草子の 견해는 尾崎文昭가 주15)의 논문에서 수용 시기와 저작 시기를 꼼꼼히 살피며 周作人の 인도주의와 시라카바파 인도주의와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밝힌 바 있고, 小川利康이 54시기 周作人の 문학관에 끼친 톨스토이의 영향을 밝힌 바 있어(『五四時期的周作人の文學觀』, 『日本中國學會報』 제42집, 1990.10.), 周作人の 인도주의는 어느 특정 작가 및 유파의 영향 관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없다.

18) 「武者小路君所作『一個青年的夢』, 93쪽.

19) 人人都是人類的相對, 不是國家的相對, 「武者小路君所作『一個青年的夢』, 93쪽.

노동자이자 紳士 동시에 紳士이자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⁰⁾ 나아가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과 여유는 각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어야 했다.²¹⁾

인생의 목적은 생존에 있을 뿐 아니라 생존을 이용해 현대를 넘어서는 일을 창조함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의지-사회 진화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직무를 다하면 초목처럼 썩지 않는다.²²⁾

周作人は 무샤노코지 및 시라카바파를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느꼈고, 新村은 그러한 삶에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험적이지만 실천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周作人は 무샤노코지의 작품을 소개한 그해 연말 「人的文學」(1918. 12. 15)를 발표했고, 잇달아 「平民的文學」(1919. 1), 「新文學的要求」(1920. 1. 8)를 발표했다. 이 3편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은 인류 가운데 하나의 개체’라는 개인주의적 인간본위는 시라카바파의 인식과 기본적으로 닮아 있다. 당시 周作人에게 ‘個體’, ‘個人’, ‘平民’은 모두 ‘人’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같은 말이었고, 이러한 ‘人’은 다수/사회/국가/민족이 아닌 ‘人類와 짝을 이루고 있다. ‘人’과 ‘人’은 어떤 국가적 조직이나 민족, 계급, 인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부모형제의 죽음을 슬퍼한다든지 하는, 인간에게 있어 본질적인 것이 매개가 되어 관계를 맺게 된다. 결국 이 매개의 내용에는 국적, 민족, 인종, 계급을 떠나 모두가 연루되어 있는 문제가 담겨있어야 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학·예술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상상력이나 情感을 통한 남과의 교류를 중시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상술한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생각한 ‘인간다운 생활’

20) 「日本の新村」(1919. 3. 『新青年』 6卷3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103-107쪽.

21) 「新村의精神」(1919. 11. 『民國日報』),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132-133쪽.

22) “人生的目的不僅是在生存, 要當利用生存, 創造一點超越現代的事業, 這才算順了人類的意志, -社會進化的法則, 盡了做人的職務, 不與草木同腐.”(「新村의理想與實際」(1920. 6. 23-24. 『晨報』),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146쪽)

이란 궁극에는 예술적 공기가 충만한 사회였다. 그의 눈에 新村은 바로 이러한 이상향을 가지적으로 하나씩 시도해가고 있는 공동체였다. 周作人は 理想을 좇는 것이 분명한 이 시도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隱士들의 獨善其身이 아니냐며 비꼬며 사회에 가만히 서서 사회정책의 개조나 주장하며 사상의 통일이나 기획하는 것보다 훨씬 실천적이며,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이라는 점에서,²³⁾ 또 자기와 같은 사람이 내면에 드리운 암흑의 그림자를 조금 걷어내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理想에 대해 약간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생명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²⁴⁾ 이처럼 周作人의 신문학운동에의 참여는, 처음부터 어떤 사회적·정치적 실현 여부와는 거리를 두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사고보다 ‘인류적 차원’에서 사고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데 좀 더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²⁵⁾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면 아마 ‘新村’과 같은 형태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는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도 緩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적지는 똑같이 ‘자유’(즉 ‘인간의 자유’)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²⁷⁾ 그러나 자신의 말대로, 변혁이란 ‘지속적(持續的)’인 것이지 ‘완성된 단편(整段的)’이 아니기에,²⁸⁾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다. 이 시기 周作人이 간과했던 것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곧,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사실이었다.

23) 「新村運動의解說:對于胡適之先生的演說」(1920. 1. 24. 『晨報』),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136쪽.

24) 「訪日本新村記」(1919. 10. 『新潮』 2卷1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125쪽.

25) 「工學主義與新村的討論」(1920. 3. 『工學』 1卷5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140쪽.

26) 周作人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될 무렵, 중국에서는 新村運動을 통해 毛澤東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기도 하나, 周作人이 상상했던 新村은, 당시 무정부주의자들의 新村과도 달랐고, 여타 사회주의 공동체와도 다른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尾崎文昭, 「周作人の新村提唱とその波紋(下) - 五四退潮期の文學狀況(1)」, 『明治大學教養論集』 237호, 1991년, 68-72쪽)

27) 「工學主義與新村的討論」,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142쪽.

28) 「新村的討論」(1920. 12. 『批評』 5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153쪽.

3. 길 찾는 사람 : 혼란과 방황

산문작가로 유명한 周作人은 詩를 남기기도 했는데, 주로 1921년 北京 교외의 西山에서 요양을 할 때 쓴 것으로 『過去的生命』²⁹⁾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전문적 詩作이 아니라서 거의 산문에 가깝다고 본인도 자평한 바 있지만, 공교롭게도 신문학 사단이 분열되는 시기에 쓴 것이라 산문 『山中雜信』과 함께 당시 周作人의 심정을 추측하는 자료로 자주 인용된다.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은 비애의 분위기 속에서,³⁰⁾ 예수도 모세도 아닌 유약한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³¹⁾ 사상적 혼란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다. 마치 5·4퇴조기의 분위기를 대변한 듯한 이러한 혼란과 방황의 원인은 당시 문단과 사회·정치 상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앞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1920년에 陳獨秀 및 공산당에 동조하는 세력이 上海로 옮겨가면서 『新青年』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경향을 띠게 되었고, 신문학 진영 내부에서는 소위 ‘인생파’와 ‘예술파’가 일종의 과별을 형성하는 듯한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인생을 위한 예술’이든 ‘예술을 위한 예술’이든, ‘예술은 당연히 인생적인 것’인데, ‘인생’과 ‘예술’을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 자체가 다소 소모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周作人의 눈에 그 이 두 과가 각각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 일종의 기득권 획득을 위한 논쟁을 하는 듯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³²⁾

정치·제도상에서는,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정부가 학생과 민중들에게 당연한 듯 총칼을 겨누고 있었다. 5·4 운동 이후 ‘시위’라고 하면 무조건 軍警부터 내세워 자신들의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정부를 보면, 공화니 법률이니 하는 것은 모두 소용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중국의 公民으로서 일본이라는 외국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당황스럽고도 모욕적인 일이었다.³³⁾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부당한 교육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北京 지역의 교직원들이 청원을 목적으로 新華門 앞에 모였다가 군정에게 구타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교직원 자기네들이 시위하다가 부딪쳐서 다친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었다. ‘정부’란 늘 이런 식이었다. 군함과 유람선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부딪친 자들에게 항상 잘못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죽은 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질서’라는 것조차 ‘경찰들이 대로 양쪽에 늘어서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듯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오로지 ‘청원’을 하기 위해 모이기만 해도, 바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죄는 역시 ‘맞은 자’에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內政의 상황이 周作人에게는 거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다.³⁴⁾

게다가 신문학운동의 물결 속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은, 각종 구호, 운동, 동맹회가 난립하는 상황을 부추기거나 냉정한 판단의 눈을 잃고, 이러저러한 각종 선동에 휩쓸리고 있었다. 反제국주의의 동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엄연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와 기독교 정신은 별개의 것인데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非宗教’라는 모호한 말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민심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감정적 대응식의 종교 탄압은 곧 사상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중국인에게 뭉쳐서 대적해야 할 대상이 기독교나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라 기독교의 외피를 입고 들어오는 제국주의 세력임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학교 교원과 지식인들이 이면의 속마음은 숨긴 채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동기만 자극하는 것에 대해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³⁵⁾

한편, 당시의 대표적인 國學잡지 『學衡』에 기고하는 사람들의 학식과 취지야

29) 1929년 上海北新書店 출판. 주로 『新青年』과 『每周評論』에 발표했던 작품들을 묶은 것인데, 1919년작 5首, 1920년작 5首, 1921년작 18首, 1922년작 2首, 1923년작 6首가 실려 있다.

30) 『過去的生命』(1921. 4. 4), 止庵 校訂, 『澤瀉集·過去的生命』, 河北教育出版社, 2003, 20쪽.

31) 『歧路』(1921. 4. 16), 止庵 校訂, 『澤瀉集·過去的生命』, 河北教育出版社, 2003, 23쪽.

32) 『新文學的要求』(1920. 1. 8. 『晨報』), 『文藝上的寬容』(1922. 2. 5. 『晨報副刊』), 『周作人文類編③本色:文學, 文章, 文化』 45쪽, 67쪽.

33) 『前門遇馬隊記』(1919. 6. 『每周評論』 25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322쪽.

34) 『實在青衫』(1921. 6. 15. 『晨報』), 『碰傷』(1921. 6. 10. 『晨報』), 『廉恥與秩序』(1921. 6. 17. 『晨報』),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327쪽, 324쪽, 329쪽.

35) 『信教自由的討論』(1922. 4. 11. 『晨報』), 『思想壓迫的黎明』(1922. 4. 11. 『晨報』),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275쪽, 278쪽.

의심할 것이 없지만, 신문학 사단을 아무 생각 없이 유럽이나 ‘모방’하는 단체로 비난하고, 이처럼 時局이 어지러운 때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國學을 강연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교육을 받은 중국인이자라면 ‘모방’과 ‘영향’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으므로, 古人을 ‘모방’하는 자들이 서양을 ‘모방’하는 자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國粹는 歐化는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主人정신을 가지고 그 양쪽의 精髓를 흡수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³⁶⁾ 이처럼 당시의 사상계가 가뜩이나 ‘復古와 排外’로 흘러가는 판국에 章太炎 선생까지 나서서 대중강연을 했으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심란해 있던 周作人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가 우려한 것은, 章太炎과의 견해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의 깊은 학식과 견해도 白話新文學이 가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³⁷⁾ 이러한 현재의 국수주의적 경향이 결국 국가 전통주의로 점차 형태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었다.³⁸⁾ 오로지 ‘排外’에 시선이 고정된 자들은, 심지어 理智와 상상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할 아동 교육에 있어서조차 정치적 의론을 주입하기도 했다. 이는 애초에 희망했던 정정당당한 ‘人’을 양성하고자 했던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던 징표 같은 것이었다.³⁹⁾

이와 같은 신문학운동 퇴조기의 혼란스럽고 정체된 분위기는, 周作人으로 하여금 건드리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 상처에 손대지 않을 수 없는 부상자처럼 불쾌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신문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⁴⁰⁾ 이후, 세상일에

36) 「國粹與歐化」(1922. 2. 12. 『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社會，時事』, 185-186쪽.

37) 『學衡』이 창간되고, 또 “미래의 세계 문화는 중국문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梁漱溟의 강연‘동서문화 및 그 철학’이 중국 지식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던 와중에 章太炎은 江蘇省 교육회의 초청에 응하여 1922년 4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0회에 걸쳐 上海에서 國學大概와 國學派別을 강연했다. 과거 일본에서의 講學이 이론을 실제와 연계시키는데 치중한 반면, 이때의 강연은 순학술성의 강연이었다. 사실 이 때문에 첫 날 강의에만 4백여 명이 청강했고, 그 이후로는 날이 갈수록 청강자가 줄었다.(천성립, 『중국 근대 사상세계의 한 흐름』, 신서원, 2002년, 164-165쪽) 周作人의 판단대로, 章太炎의 의도와 청강자의 목적은 서로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다.

38) 「思想界的傾向」(1922. 4. 23. 『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社會，時事』, 194-195쪽.

39) 「關於兒童的書」(1923. 8. 17. 『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上下身：性學，兒童，婦女』, 712쪽.

신경 쓰지 말고 문 닫고 독서나 하자고 ‘閉門讀書’를 공표했으면서도 많은 雜文을 남긴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周作人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조상숭배를 철폐하고 과감히 지손숭배를 외치며⁴¹⁾ 그가 중국의 앞날에 희망을 걸었던 청년들이었다. 『新青年』 창간호부터 자신뿐 아니라 胡適, 陳獨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婦女문제를 통해 봉건적인 윤리 관념을 비판해 왔음에도, 이 잡지의 주요 애독자였던 청년들에게서, 정작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가 되면 禮教를 들먹이는 구식 남성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다.⁴²⁾ 周作人에게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무리 신식 교육을 받더라도, 결국 연애는 불결한 性欲의 표현이고, 재혼은 비난해도 축첩은 의식적으로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즉 중국 사회는 기존의 사상적 메커니즘의 문제점조차 인식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⁴³⁾ 입센의 Gengangere가 ‘유령들(群鬼)’로 이미 번역된 것을, 굳이 ‘重來(다시 살아온 망령)’이라고 재번역한 것도 이와 같은 그의 충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신문학운동을 통해 그렇게 타파하고 싶었던 ‘舊來의 굴레’가, 그 신문학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重來’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고 만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5·4운동은 중국인에게 군중운동이든 뭐든 성사시킬 수 있다는 미신과 시위만능·데모만능이라는 미신을 심어줬기 때문이었다. 理性에 의해서보다 감정적으로 선동된 군중은, 신문학운동의 토대였던 사상·언론의 자유에 있어, 외세 그리고 정부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압력을 가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다.⁴⁴⁾ 이후 좌익문예운동에서 비난한 것처럼 신문학운동의 한계는 뼈피 부르주아 운동에 그친 점에 있지 않았다. 周作人의 문맥에서는 오히려 감정적 선동에 의한 맹목적인 군중 확보가 한계로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李澤厚의 말대로 민족 救亡의 혁명적 긴박감이 당시의 계몽이성을 가려버려서

40) 「山中雜信」.

41) 「祖先崇拜」(1919. 2. 『每周評論』 10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社會，時事』, 170쪽.

42) 「關於誰是犧牲的問題」(1923. 3. 29. 『晨報副鐫』), 「卑劣的男子」(1924. 2. 1 5. 『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⑤上下身：性學，兒童，婦女』, 443쪽, 451쪽.

43) 「重來」(1923. 6. 14. 『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社會，時事』, 225쪽.

44) 「五四運動之功過」(1925. 6. 29. 『京報副刊』),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社會，時事』, 334쪽.

그런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는 없었다. 이후 수년간 周作人은 ‘군중’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하는 ‘重來’와의 외로운 투쟁을 했다. 이것은 수십 편의 雜文 창작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민속학적 차원의 연구와 창작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나는 길 찾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매일 걸으면서 길을 찾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 길의 방향을 알지 못하겠다.

지금에 와서야 알겠다. 슬픔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스런 길이라는 것을.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함께하는 길이지만, 우리는 그저 의식하고만 있을 뿐이다.

이 길의 끝은 죽음이다.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곳을 향하여 간다. 또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발버둥치지 않을 수도 없다.⁴⁵⁾

4. 혁명세력과의 결별

요양에서 돌아온 周作人은 혁명운동 쪽으로 기우는 문단의 주류적 분위기와는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1922년 3월 말에 발표한 「主張信教自由者的宣言」(1922. 3. 31. 『晨報』)이었다. 이 선언은 上海에서 「非基督教學生同盟宣言」(1922. 3. 9)이 발표되자, 이에 北京에서 「非宗教大同盟公電及宣言」(1922. 3. 20-22. 北京 『晨報』)의 발표로 호응하면서 전국적으로 일게 된 非宗教運動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무렵의 非宗教運動이 가지는 중요성은, 신문학 사단과 초기 공산주의자, 청년 학생, 민중, 외국세력이 문학·종교·정치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이후의 중국사회를 파악하는데 일종의 분기점

45) 我是尋路的人。我日日走着路尋路，終於還不知道這路的方向。現在才知道了，在悲哀中掙扎着正是自然之路，這是與一切生物共同的路，不過我們單獨意識着罷了。路的終點是死。我們便掙扎着往那裡去，也便是到那裡以前不得不掙扎着。(「尋路的人」(1923. 7. 30), 止庵 校訂, 『澤瀉集·過去的生命』, 河北教育出版社, 2003, 43쪽)

이 됨에 있다. 非宗教運動은, 현대의 기독교와 교회가 ‘對중국 제국주의적 경제 침략의 선봉대’ 역할을 함을 중국 전역에 알리기 위해, 세계기독교학생동맹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중국의 혁명 운동사에 있어 초기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진행된 대규모 反제국주의 투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⁴⁶⁾ 단순히 기독교를 문화적 종교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느냐 정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느냐의 양자 대립으로 보기에는 많은 복잡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非宗教運動에서 보여준 周作人의 견해는, 그가 시대적 조류에서 퇴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단지 그의 문학관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바로 앞 3장에서 5·4퇴조기의 다양한 정황들을 얘기하면서도 언급했듯이, 周作人이 非宗教運動에 반대했던 것은, 1)운동 세력의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 2)가혹하다 못해 폭력적인 구호, 3)냉철해야 할 지식인들이 오히려 나서서 군중을 이용한 점, 4)존립의 여력마저 위태로운 정부를 대신해 군중들 스스로가 나서서 사회세력에 의지하여 사상 금지를 해나갔기 때문이었다.⁴⁷⁾ 특히 北京에서의 非宗教運動은 ‘反제국주의’가 아닌 ‘과학 선양’·‘미신 반대’라는 구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과 교육자로부터 많은 동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⁴⁸⁾ 周作人의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운동의 이면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지 못한 불성실함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알고 보면 중국인의 노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본 제국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을,⁴⁹⁾ 오직 국산품이라는 이유로 물질적 편리와 금전상의 손해를 감당하면서 국산품 제창에 참여해야 하고, 국가의 고통(國苦)이라는 이유로 생명과 재산을 다치더라도 원망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國’이라는 글자가 어찌다 신성한 물건이 되었는지 모를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46) 錢理群, 『周作人研究二十一講』, 中華書局, 2004, 196쪽. 홍미로운 점은, 非宗教運動을 다룰 때, 중국의 학자들은 ‘反제국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의 학자들은 배후 세력으로 ‘공산당’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경향(山本澄子, 『中國キリスト教史研究』, 東大出版會, 1972)이 있다.
47) 「信教自由的討論」, 「思想壓迫的黎明」, 「關於非宗教」(1927. 2. 『語絲』 117期), 『周作人文類編』 ① 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275쪽, 277-278쪽, 295쪽.
48) 尾崎文昭, 「陳獨秀と別れるに至った周作人」, 『日本中國學會報』 제35집, 1983년, 234쪽. 이 때문에 尾崎文昭는 北京과 上海의 非宗教運動의 성격과 그 배경을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49) 「窮蹙的國貨」(1923. 10. 23. 『晨報副刊』), 『周作人文類編』 ① 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228쪽.

데,⁵⁰⁾ 그 많은 저명인사들은 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陳獨秀로 대표되는 혁명운동 세력에 대한 반감은, 이와 같은 ‘國’이라는 글자를 내세워 아직은 미숙한 세력인 ‘군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 심했다. 周作人は ‘愛國’을 말할 때, 그 충정의 대상이 곧 ‘國’을 가리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생각은 5·4 이전의 글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중국의 志士들은 항상, 국민들이 애국을 모르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이를 바르게 말하자면, 중국이 망하고 난 뒤에는, 그들의 말에 따라 애국하려 해도 이미 망해서 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대들이 애국을 말하지 않는 것만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통상적으로 말하는 愛國이란 모두 愛政府일 뿐이다.)⁵¹⁾

周作人의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은, 이와 같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차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고 있다.⁵²⁾ 그는 흘린 피의 양으로 조국의 영광을 따지는 것은 ‘獸性의 애국’이라고 생각했다. 충정을 바쳐야 할 ‘國’이란, 누구나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태어나서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고, 낚시하고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어서, 종신토록 잊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국가’였다.⁵³⁾ 그가 3·18 학생운동에서 희생된 두 명의 女師大 학생을 추모하면서, 국민당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헛된 죽음’이라고 슬퍼했던 것도,⁵⁴⁾ 먼 훗날에도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무슨 세상이, 아직도 애국을 말하는가? 이처럼 죽으면 신선이라도 되는가!(什麼世界, 還講愛國? 如此死法, 抵得成仙!)”⁵⁵⁾라고 애통해 했던 것도, 모두 이

50) 『提倡國貨的心理』(1923. 8. 19. 『晨報副刊』),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226-227쪽.

51) “中國志士有恒言曰, 國人不知愛國, 則國可亡已. 今爲正之曰, 中國果亡, 第使循君言而愛國, 則亡且莫救. 故欲勿亡之求, 其惟君輩之勿言愛國始矣.(通言愛國, 皆愛政府耳.)”, 『中國人之愛國』(1907. 11. 『天義報』 11. 12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4쪽.

52) 董炳月, 『周作人的“國家”與“文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作家出版社, 2003. 3. 170쪽.

53) 夫人情戀其故鄉, 大抵皆爾, 生于斯, 歌哭于斯, 兒時釣游之地, 有畢世不能忘者, 天懷發中然耳. 『中國人之愛國』,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4-5쪽.

54) 『關於三月十八日的死者』(1926. 3. 29. 『語絲』 72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340-343쪽.

와 같은 자신의 애국관에 기반한 것이었다. 周作人의 말대로 국민이 애국을 할 때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후 전개된 중국의 역사에서는 국민 즉 민중을 영웅시하는 방식으로 ‘國’의 틀 속에 포섭해간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周作人의 애국과 국가관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의 혁명운동파들은, 周作人을 “내 평생 가장 경애하는 벗”이라고 부르던 진독수마저 책을 지면서 그를 시대의 낙오자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다.⁵⁶⁾ 이때부터 시작된 ‘反제국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각각 변형된 ‘重來’가 되어 중국 사회에 남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중’은 실망의 대상이라기보다 희생자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周作人의 사상적 입장 변화는 민중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중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선각자-뒤따르는 대중’이라는 구도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自己的園地』(1923년9월 北京晨報社 출판) 이후에는 다소 모호해졌으며, 『閉門讀書論』(1928)과 『知堂說』(1932)을 발표할 무렵에는 자신을 보통 사람들 가운데 단지 문학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소개하는, 계몽자의 위치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5·4 이후 군중 사상혁명의 어려움과 불가능함에 대한 절망으로 인한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⁵⁷⁾ 1921년 병상에서 썼던 시와 非宗教運動에서 보여준 ‘重來’에 대한 우려 속에서, 문제의 초점은 ‘민중’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줄기 강물, 유유히 앞으로 흘러가네.

지나간 곳, 강가는 모두 검은 흙으로 덮여있고,

붉은 꽃, 푸른 잎, 노란 열매가 만발해 있구나.

농부 하나가 호미를 메고 와서, 강 가운데 작은 방죽을 만들기 시작했네.

하류는 말라가고, 상류의 물은 방죽에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네.

또 돌아갈 수도 없으니, 물은 그저 둔덕 앞에서 어지러이 맴돌고만 있네.

55) 「一四九 3·18」, 止庵 校訂, 『知堂回想錄』, 河北教育出版社, 2003, 516쪽.

56) 尾崎文昭, 『陳獨秀と別れるに至った周作人』, 『日本中國學會報』 제35집, 1983년, 237쪽.

57) 김미정, 『현대를 향하여 - 周作人의五四관』, 『중국현대문학』 16집,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16쪽.

물이 생명을 보전하려면, 항상 흘러야 하는데,
그저 둔덕 앞에서 어지러이 맴돌고만 있네.⁵⁸⁾

시적 화자는 강가에서 자라고 있는 풀인데,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던 강물이 막혀서 강 주변이 모두 황폐해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 스스로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民猶水也, 水能載舟, 亦能覆舟)”는 옛말을 인용하면서 시의 제재에 대해 설명한 바 있어, 민중이란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다가도 일단 구속에서 벗어나면 광란에 빠져 포악해질 수 있다는 식의 周作人의 민중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⁵⁹⁾의 하나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되살아난 조상의 망령을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띤 ‘민중’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민중에 대해 실망하고 불신감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면 타당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제나 그렇듯 변함없이 흘러가던 강물의 흐름이 막힌 것은, 농부가 만들어놓은 조그마한 방죽 때문이었다.

1925년의 5·30 사건에서 희생된 시민들만 해도 그렇다. 그들은 혁명세력이 만들어놓은 ‘공理’와 ‘군중운동’이라는 미신의 희생자였다.⁶⁰⁾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열사를 먹게 되는 민중이었지만, 누구들처럼 관직이 오르고 녹봉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⁶¹⁾ 그가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민중’ 그 자체가 아닌, ‘군중’에게 붙어있는 ‘重來’와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식인이었다. ‘重來’는 새로운 신식 거울로 비춰봐야 할 만큼, 군주·어버이·스승·은행원·사기꾼·도학자 등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사회 속에서 등장했다.⁶²⁾ 周作人이 말하는 ‘重來’는 일종의 ‘진제적인 광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不明’한 요소를 가리킨다.

언제부터인가 많아진 北京 거리의 난민들을 속에서, 전족이 폐지된 세월이 얼마인데, 北伐이다 뭐다 난리통에 여전히 전족을 한 채 불편한 발로 전국을 떠도는 어느 난민 여성의 모습에서,⁶³⁾ 원래는 저승길에서 전생의 일을 잊을 때나 마신다는 孟婆湯같은 마취약이, 버젓이 상점을 통해 매매되어 아이를 유괴하는 데 쓰인 사건⁶⁴⁾ 등 일상에서 목격되는 사소한 ‘不明’으로 인해, 중국인은 판단력을 상실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周作人이 이렇게 다시 살아온 ‘不明’을 염려했던 것은, 산 자의 피를 문헌 밥을 먹여가며 귀신을 방관하는 사회에서는, 간디 같은 영웅이 이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⁶⁵⁾ 非宗教運動은 反제국주의 구호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1927년 이후에는 거의 호지부지 사라지고 말았지만, 周作人의 우려했던 바는 이후에도 중국인의 일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당시 대중을 이끌며 세력을 형성하던 혁명운동과 및 지식인층은, 결과적으로 이런 연민을 일으키는 민중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 셈이었다. 이후 중국은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투쟁의 역사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두 계급 모두 ‘升官發財’라는 공통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니, 아무리 그들이 士商農工을 위해 축포를 쏜다 하더라도 혁명문학이 무료한 文士의 창작과 다른 점은 뭐가 그렇게 있을 수 있었겠는가?⁶⁶⁾ 救亡의 구호 아래서 그 홀로 ‘重來’와 ‘不明’을 걱정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5. 마치며

문학사에서는 周作人의 산문 가운데 감성적 호소력이 돋보이는 『雨天的書』에

256-257쪽.

63) 「閑話雜錄民婦女的脚」(1926. 6. 14. 『語絲』 83期), 『周作人文類編』⑤上下身: 性學, 兒童, 婦女, 231쪽.

64) 「迷魂藥」(1923. 6. 8. 『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⑥花煞: 鄉土, 民俗, 鬼神, 189-190쪽.

65) 「印度的迷信」(1922. 10. 18. 『晨報副鐫』),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279쪽.

66) 「爆竹」(1928. 2. 『語絲』 4卷9期), 『周作人文類編』⑥花煞: 鄉土, 民俗, 鬼神, 195-196쪽.

58) 一條小河, 穩穩的向前流動. 經過的地方, 兩面全是烏黑的土, 生滿了紅的花, 碧綠的葉, 黃的果實. 一個農夫背了鋤來, 在小河中間築起一道堰. 下流幹了, 上流的水被堰攔着, 下來不得, 不得前進, 又不能退回, 水只在堰前亂轉. 水要保他的生命, 總須流動, 便只在堰前亂轉. 「小河」, 止庵 校訂, 『澤寫集·過去的生命』, 河北教育出版社, 2003, 5쪽.

59) 錢理群, 『凡人的悲哀-周作人傳』, 業強出版社, 1995, 11쪽.

60) 「五四運動之功過」,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333쪽.

61) 「吃烈士」(1925. 8. 『語絲』 38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515쪽.

62) 「我們的敵人」(1924. 12. 22. 『語絲』 6期),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 思想, 社會, 時事, 333쪽.

실린 작품들이 높이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烏篷船, 「故鄉的野菜」, 吃茶, 蒼蠅, 北京的茶食 같은 작품들이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주작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1930년 이후의 抄錄體 산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산문 창작 전반을 다시 볼 수 있는 성과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중국 출판 시장에서 묶여 나오는 주작인의 작품집을 보면, 일반 독자들에게는 다소 편향적으로 제시되는 듯하다. 더군다나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출판된 많은 중국의 산문작품의 성격이, 마치 이렇게 인식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처럼 제시되고, 나아가 이 작품들이 시장경제의 도입과 맞물려 소비지향적인 독서풍조를 일으키는데 일조했던 사실을 생각해보면, 다소 씩씩하지 않을 수 없다. 혁명문학이 사라진 자리에 감상적 생활의 편린들을 쓴 작품이 대신하여 지난날의 그 지위를 누리는 모습이랄까? 나 개인적으로는 이 때문에 주작인 작품속의 감성이 사회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얻어진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주작인은 『自己的園地』나 『雨天的書』 같은 성향의 글을 쓰면서, 상술한 바와 같은 날카로운 理性을 기반으로 한 작품도 동시에 창작했던 사람이었다. 글 속에서 ‘혁명’과 ‘구국’을 소재적 차원이든 주제적 차원이든 직접으로 다루어야만 救亡에 종사했다고 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국가’, ‘민족’, ‘민중’, ‘혁명’만큼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은가? 물론, 이처럼 예민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중일전쟁 시기 漢奸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행적을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 5·4퇴조기에 그가 보여준 것은, ‘절대적 자유’라는 것을 황당하게 생각하는 정치 운동가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문예가다운 周作人의 일면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시기의 애국관이 일제에 부여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연관성은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鍾叔河 編, 『周作人文類編①中國氣味：思想, 社會, 時事』, 湖南文藝出版社, 1998.

- _____, 『周作人文類編③本色：文學, 文章, 文化』, 湖南文藝出版社, 1998.
- _____, 『周作人文類編⑤上下身：性學, 兒童, 婦女』, 湖南文藝出版社, 1998.
- _____, 『周作人文類編⑥花煞：鄉土, 民俗, 鬼神』, 湖南文藝出版社, 1998.
- _____, 『周作人文類編⑧希臘之餘光：希臘, 西洋, 翻譯』, 湖南文藝出版社, 1998.
- 止庵 校訂, 『(周作人自編文集)中國新文學的源流』, 河北教育出版社, 2002.
- _____, 『墨寫集·過去的生命』, 河北教育出版社, 2003.
- _____, 『知堂回想錄』, 河北教育出版社, 2003.
- 錢理群, 『凡人的悲哀-周作人傳』, 業強出版社, 1995.
- 錢理群, 『周作人研究二十一講』, 中華書局, 2004.
- 陳思和, 『中國現當代文學名篇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2005.
- 劉全福, 『翻譯家周作人論』,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7.
- 董炳月, 「周作人的“國家”與“文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作家出版社, 2003.3.
- 細谷草子, 「五四新文學の理念と白樺派の人道主義」, 『中國文藝研究會』, 제6호, 1972.
- 尾崎文昭, 「陳獨秀と別れるに至った周作人」, 『日本中國學會報』 제35집, 1983.
- 尾崎文昭, 「周作人の新村提唱とその波紋(上) - 五四退潮期の文學狀況(1)」, 『明治大學教養論集』 207호, 1988.
- 尾崎文昭, 「周作人の新村提唱とその波紋(下) - 五四退潮期の文學狀況(1)」, 『明治大學教養論集』 237호, 1991.
- 사카모토 히로코(坂元ひろ子), 양일모·조경란 옮김, 『중국 민족주의의 신화』, 지식의 풍경, 2004.
- 천성림, 『중국 근대 사상세계의 한 흐름』, 신서원, 2002년.
- 김영구, 「신문학운동에 있어서의 『新青年』의 역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신홍철, 「5·4초기 周作人의 현실인식과 문예사상」, 『중어중문학』 제12집, 1990.
- 溫儒敏 著, 신진호 역, 『중국현대문학비평사』, 신아사, 1994.
- 김미정, 「현대를 향하여 - 周作人의 五四관」, 『중국현대문학』 16집, 서울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中文提要>

周作人의人道主義는 일본의白樺派、俄國以及被壓迫民族의文學裏의凡人類主義思想的

影響下形成的。他根據這樣的“人類愛”參加5·4新文學運動，不僅努力創作新文學作品並且進行新村運動。但是，5·4新文學運動的性格越來越從思想革命到政治革命變化，甚至於把‘民衆’偶像化了。在這樣的情況下，他看到附在許多活人身上的死鬼‘重來’，開始一個人孤獨地鬭爭了。這‘重來’是特別以‘國家’、‘民族’、‘民衆’的形象顯現出來，也以君主、雙親、老師、銀行家、道學家顯現出來了。所以他首先批評知識分子；他們不但是非理智的，而且在政治性的口號下鼓動了群眾的人心。說了歸去，全中國人被‘重來’的迷信犧牲了。終於他對革命派告別，寫出了從人類學、民俗學的方面的各種‘重來’。現在，國家至上主義仍然在擴散的情況下，對於‘國家’、‘民族’、‘民衆’的周作人的看法恐怕是仍然具有意義的見解。

關鍵詞：人類愛、《一個青年的夢》、新村運動、重來、愛國、新文學運動

원고접수일	2008. 1. 15
심사일정	2008. 2. 11
1차수정	2008. 2. 22
게재확정	2008. 3. 7
출간	2008. 3. 30